

■ 일곡도서관, 5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노인 연극교실'

# 실버연극단, 웃음꽃 피었네

7일 오전, 광주 일곡도서관 강당에 들어서자 흥겨운 트로트 메들리가 들려왔다. 무대 바닥에 누운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몸을 쭉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이들이 도서관에 모인 건 연극 연습을 위해서다. 지난 10월2일부터 매주 두차례씩 '노인 연극교실'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며칠 전부터 본격적인 대본 읽기와 연기 연습에 들어갔다.



7일 일곡 도서관의 연극교실에 참가한 노인들이 연극 속 전통장면을 연습하고 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일곡도서관이 문화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노인 연극교실'에는 모두 16명의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다. 연령대는 55세부터 78세까지 다양하고 단장을 맡고 있는 주병철(77) 할아버지가 유일한 청일점이다.

처음에는 참가자 모집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 노래 부르는 거라면 모를까, 연극을 한다고 하니 모두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즐거운 실버 연극단'이라는 근사한 이름까지 갖게된 지금은 모두 연극의 매력에 푹 빠진 상태다.

## '즐거운 인생' 연극 매력에 푹 빠져...창작극 '갯손애' 내달 공연

연극 연습은 언제나 '서로 꼭 보듬어 주기'로부터 시작한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를 틀어놓고, 따뜻한 마음을 전하며 서로 애정을 표현한다.

사실 노인들은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자주 보인다. 그래서 연극 강사들은 그들이 사랑받는 존재, 귀한 존재라는 걸 알려주려 한다.

이어지는 순서는 몸풀기. 아무래도 노인들이라 보니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격한 몸동작을 할 경우 몸

표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자, 선머슴 같은 딸 아이를 동네 사람이 흥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상관 말라고, 우리 딸은 내가 믿는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으며 대본을 완성해 나갔다.

김영희(78) 할머니가 딸을 낳았을 때의 태몽이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되는 등 노인들의 경험이나, 제안 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장군 역을 맡은 송영애(70) 할머니는 "장군 역할을 맡아 칼도 휘두르고 큰 소리로 지르니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김영희 할머니는 "단

장님이 남편으로 출연하는데, 진짜 남편을 발표할 때 불려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다"며 웃었다.

단원들은 12월12일 첫무대에 서며 연말에 펼쳐지는 동아리 발표회에도 참여한다. 기회가 닿는다면 양로원 등에서도 공연할 계획이다.

조미연(37) 강사는 "처음에는 연극을 한다는 데 대해 낯설어 하기도 하셨지만 지금은 많이 행복해 하신다"며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배울 때도 너무 감사해 하신다"고 말했다. 문의 062-575-3457.

표정을 지어야 할 것 같은데." "자, 선머슴 같은 딸 아이를 동네 사람이 흥보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 상관 말라고, 우리 딸은 내가 믿는다고 말해야지."

이렇게 대화를 주고 받으며 대본을 완성해 나갔다.

김영희(78) 할머니가 딸을 낳았을 때의 태몽이 작품 속에 그대로 표현되는 등 노인들의 경험이나, 제안 등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다.

장군 역을 맡은 송영애(70) 할머니는 "장군 역할을 맡아 칼도 휘두르고 큰 소리로 지르니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김영희 할머니는 "단

# '두번째 달' 광주 콘서트

10일 전남대 후문 앞 네버마인드



derland' 등 '두번째 달'의 음악은 수많은 CF에 등장, 그들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의 귀에도 익숙해 있다. 이번 콘서트에서는 아일랜드 여행

드라마 '아일랜드'의 주제가되었던 '서쪽 하늘에'로 알려진 아이리쉬 밴드 '두번째 달'이 광주에서 콘서트를 갖는다. 10일 오후 7시 전남대 후문 앞 네버마인드.

'두번째 달' 아이리쉬 트래드-프로젝트 바드'를 결성, 아일랜드 전통음악을 좀 더 가까이서 느끼기 위해 음악여행을 떠났던 '두번째 달'은 이번 공연에서 아일랜드의 전통음악과 새

음반에 수록할 크로스오버 창작곡, 1집 수록곡들을 들려준다.

지난 2005년 발표한 음반 '두번째 달'로 제3회 한국대중음악상 앨범상, 신인상 등을 수상한 '두번째 달'은 이후 드라마 '궁'의 OST 작업에 참여, 많은 팬을 확보하며 국내 월드뮤직계의 선두 자리를 굳혀왔다.

특히 권상우가 출연한 화장품 광고에 등장했던 'The Boy From Won-

# 만화로 울고 웃었던 인생 '나대로 간다'

네 컷 시사만화 '나대로 선생' 이흥우씨 회고집 발간

1980년 11월부터 동아일보 네 컷 시사만화 '나대로 선생'을 28년째 연재 중인 시사만화가 이흥우(58)씨가 자신의 만화 인생을 회고한 책을 출간했다.

부산 출신인 이씨는 1967년 대전지영 신문 중도일보에 '두루미'를 연재하며 시사만화가로 데뷔해, 1973년부터 8년 동안 광주일보 전신인 전남일보에 '미라리 여사'를 연재하기도 했다.

'나대로 간다'(동아일보사)는 이씨가 동아일보에 입사해 '나대로 선생'을 시작하게 된 배경부터 지금까지 만화로 울고 웃었던 뒷이야기들을 담았다.

이씨는 긴 호흡 없이 수십 년간 한 걸만 달려온 자신의 만화 인생을 마라톤과 비교하며, "매일 마감하는 과정과 그 긴장감이 주는 전율, 존재감"은 마라톤 선



수가 30km 이상 달렸을 때 느끼는 '러너스 하이(Runners' High)'와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만화가가 되기까지의 평탄하지 않았던 이씨의 삶과 5공화국에서 참여정부까지 시대상을 엿볼 수 있는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책은 '나대로와 함께 한 이흥우 선생', '나대로 선생에 울고 웃은 사람들', '나대로 선생에 비친 세상', '나대로와 한국 시사만화' 등 4부로 구성됐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현대문명 속 인간, 우울한 자화상

허진 교수 서울 한전아트센터서 개인전



'유목동물+인간-문명2007'

한국화가 허진(전남대학교 예술대학) 교수가 9~18일까지 서울 한전아트센터 한전프라자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난다.

호남 남종화의 시조인 소치 허련의 고손자이며 남농 허건의 장손이기도 한 그는 이번 전시에서 전통 한국화에 현대적인 주제와 화법을 접목한 '유목동물+인간' 연작을 선보인다.

문명에 대한 냉정한 시선이 녹아있는 화폭에 등장하는 컴퓨터 등 첨단기기는 안주하지 못하는 유목동물의 이미지와 함께 부유하고 있는 인간들의 우울한 자화상을 담고 있다.

한국화의 전통소재인 수묵채색을 고수하고 있는 허씨는 화면 구성과 내용에서도 현대적인 조형언어를 채택함으로

서 한국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문의 02-2055-1192.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 음악·문학을 사랑한 젊은 날의 열정

정상섭展 8~14일 광주신세계갤러리



'Rhapsody in blue I'

서양화가 정상섭씨가 8~14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연다.

정씨는 'Rhapsody in blue'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연극과 음악, 문학과 사람을 사랑했던 젊은 날의 열정과 그 시절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때 사실주의 화풍을 천착했던 그는 나무, 꽃, 산, 바다, 구름 등을 단순화하는 대신 강렬한 원색과 파스텔톤으로 화면에 조형성과 리듬감을 부여한 작품을 선보인다. 대표작 'Rhapsody in blue I'은 분할된 색면 위에 동화적인 형상들이 자유롭게 공존하는 개성넘치는 작업세계를 담고 있다.

조선대학교 회화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대구미술대전 심사위원, 광주시 미술대전 운영위원을 역임했다. 한

국미술협회, 그룹 '점선면'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1630. /윤영기자 zenfoot@kwangju.co.kr

movies 인기영화 즐겨보는 시간 보냈어요

Happy Time 영화안내

|   |   |  |   |  |   |
|---|---|--|---|--|---|
| <p>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p> <p><b>메가박스</b></p> <p>구.런던역국사거리 ☞메메1544-0600</p> <p>1관 식객 (12세) 최고급관<br/>2관 식객 (12세)<br/>3관 더버터플라이 (15세)<br/>4관 궁녀 (18세)/킹덤 (18세)<br/>5관 색,계 (18세)<br/>6관 히어로 (12세)/블랙 달리아 (18세)<br/>7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br/>8관<br/>9관 바르게살자 (15세)</p> <p>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이얼인이 종료됐습니다.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상요금 부과 *우로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p> | <p>— 온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p> <p><b>엔터시네마</b></p> <p>충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p> <p>1관 블랙 달리아 (18세)<br/>2관 킹덤 (18세)<br/>3관 M (15세)<br/>4관 바르게살자 (15세)<br/>5관 식객 (12세)<br/>6관 세브란스 (18세)<br/>7관 궁녀 (18세)</p> <p>www.entercinema.co.kr</p> <p>* 넓고 편안한 국내-음외 주차장 300대 *</p> <p>* 낮고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p> | <p>광동시영영사관 *예매: www.joycoco.com / 1588-7941</p> <p><b>컬럼버스 시네마 상무점</b></p> <p>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p> <p>1관 더버터플라이 (15세)<br/>2관 M (15세)/히어로 (12세)<br/>3관 블랙 달리아 (18세)/색,계 (18세)<br/>4관 색,계 (18세)<br/>5관 궁녀 (18세)<br/>6관 바르게 살자 (15세)<br/>7관 식객 (12세)/킹덤 (18세)<br/>8관 세브란스 (18세)<br/>9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br/>10관 식객 (12세)</p> <p>*호남 최대 주차장 *메입심이 상영됩니다</p> <p>1588-7941</p> <p>상영시간별 방법<br/>-11월 02일 - 02년</p> | <p>새로운 영화선박 *www.cinusa.co.kr / 1544-0070</p> <p><b>씨너스 전대</b></p> <p>북구보건소 건너편 ☎ 511-1000</p> <p>1관 더버터플라이 (15세)<br/>2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br/>3관 색,계 (18세)<br/>4관 궁녀 (18세)<br/>5관 블랙 달리아 (18세)<br/>6관 바르게 살자 (15세)<br/>7관 식객 (12세)</p> <p>*매일심야 상영합니다*</p> <p>* 무료주차 3시간 *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 씨너스독자 사무시(모닝-캐피탈)</p> <p>ARS 전화예매 1544-0070</p> | <p>즐거움이 가득 *www.mo12.co.kr / 1588-9101</p> <p><b>무등극장</b></p> <p>충장로 1가 ☎ 232-9106</p> <p>1관 킹덤 (18세)<br/>2관 궁녀 (18세)<br/>3관 더버터플라이 (15세)<br/>4관 바르게 살자 (15세)<br/>5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br/>6관 식객 (12세)<br/>7관 히어로 (12세)<br/>8관 블랙 달리아 (18세)/M (15세)<br/>9관 색,계 (18세)</p> <p>*리버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p> <p>*점심스낵 3시간 * 인터넷 예매 문의 *편의점의 기능 * 주말에도 포인트 사용 가능</p> <p>1588-9101</p> | <p>새로운기쁨 *www.primuscinema.com/www.jellcinema.co.kr *</p> <p><b>제일시네마</b></p> <p>충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p> <p>1관 색,계 (18세)<br/>2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br/>3관 바르게살자 (15세)<br/>4관 식객 (12세)<br/>5관 궁녀 (18세)/색,계 (18세)<br/>6관 히어로 (12세)/블랙 달리아 (18세)</p> <p>*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p> <p>* 무료주차 3시간 (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p> <p>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p> |
|---|---|--|---|--|---|